㈜스크린HD코리아, 디지털 후가공 분야 적극 공략

디지털 크리징&커팅 장비 Highcon Euclid Ⅱ 시리즈 출시

㈜스크린HD코리아(대표이사 전익성)가 지난 4월 중국에서 개최된 '프린트차이나 2015'에서 주목 받았던 디지털 레이저 크리징&커팅 장비인 'Highcon Euclid Ⅱ 시리즈'를 본격 출시하며, 디지털 후가공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자료제공 | ㈜스크린HD코리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인쇄의 수요에 발맞춰 후가공 분야에서도 디지털 후가공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목형을 제작해 작업을 진행해왔던 다이커팅 분야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했었다. 또한 목형제작 기술자의 능력에 의해 품질이 좌우되거나 난이도에 의해 제품 제작 진행여부가 판단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스라엘의 Highcon사에서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노하우를 통해 전세계 최초로 고부가가치 패키지 생산 전용 디지털 크리징&커팅이 가능한 Euclid Ⅱ 시리즈를 출시했다.

Euclid Ⅱ 시리즈는 현재 (주)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에서 국내 총판을 맡고 있으며, 이미 국내에 1호기가 도입된 바 있다.

이제는 Euclid Ⅱ의 디지털 다이커팅 기술을 통해 목형 제작에 따른 시간의 제약이나 디자인의 복잡성에 관계없이 어떠한 것이든 크리징과 커팅이 가능하게 됐으며, 디자이너가 의도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또한 다양한 소량다품종의 패키지 상품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디지털인쇄에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B2사이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급지사이즈를 기존의 절반으로 한 Highcon2 s모델(최대사이즈 760*530)도 새롭게 출시돼 기존에 높은 가격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던 고객들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Highcon2 s모델은 추후 1060x760mm사이즈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특징

Euclid Ⅱ는 특허 출원 중인 DART(Digital Adhesive rule technology) 기술을 통해 크리징 라인을 폴리머를 통해 디지털로 제작할 수 있다. 독자적인 3개 유닛의 레이저 커팅 솔루션을 통해 커팅, 하프컷, 마킹, 천공 등을 실행함으로써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복잡하고 다양한 작업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다. 라벨, 패키지(카톤박스)뿐만 아니라 1.2mm의 골판지 등에 대한 커팅 및 크리징 작업도 가능하다.

Highcon Euclid Ⅱ의 장점

- 목형 제작이 필요 없는 다이커팅
- 디자인의 한계를 초월
- 빠른 시장 진입
- 디지털 데이터 저장
- 확장된 효율성

Highcon Euclid Ⅱ를 통해 제작 가능한 상품

패키지(카톤박스), 명함, 카드, 폴더, 라벨, POP, 행거, 택 등 다이커팅으로 이뤄지는 모든 상품뿐만 아니라 개인화된 패키지, 세밀하게 커팅된 상품. 아울러 기존 다이커팅 시스템으로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품의 개발도 가능

패키지

카드